

분과 6

초중등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

사회 :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미국 남가주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주요 쟁점과 과제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의 한국어 FLAG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영일(Crescenta Valley HighSchool)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의 배경 설명과 함께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¹⁾의 FLAG(FLAG: Foreign Language Academies of Glendale)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Korean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소개하고, 해당 교재의 채재와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유의한 새로운 주장을 입증하는 논의라기보다는 현장의 정보와 상황을 관련 한국어 연구자들에게 공유하는 목적을 띤다. 이러한 논의가 좁게는 글렌데일(Glendale) 및 라크레센타(La Crescenta) 지역 한국어 교육의 특성, 넓게는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지역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근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재미동포 학습자들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에 작게나마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중 언어 교육의 배경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CAL, 2005)에 따르면 ‘이중 언어’는 교실에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은 영어와 목표어²⁾로 학생들을 가르쳐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 모델이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그 유형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학생들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첫째, 두 언어(영어와 목표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숙달도를 바탕으로 이중 언어 능력과 이중 문해력을 발전시킨다. 둘째, 두 언어에서 각 학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업 성취를 달성한다. 셋째, 동료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발전시킨다.³⁾

다인종·다민족·다문화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에서 이중 언어 몰입(DLI: Dual Language Immersion) 프로그램은 흔하디 흔한 풍경이지만,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특성화 학교를 제외하면 이러한 교육 모델이 여전히 생소하게 여겨진다. 물론,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이중 언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 및 사회 적응에 목표를 두거나 비(非)다문화 학생들에게 다른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

1) 이하 GUSD로 칭한다.

2) ‘target language’, ‘partner language’, ‘second language’ 등이 사용되나, 본 논의에서는 ‘목표어’로 통일한다.

3) 미국 교육부의 OELA(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에서 발간한 자료 참고.

어지고(김춘수, 2021), 정규 과정과 별개로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비정규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찍이 1839년에 오하이오 주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승인하는 이중 언어 교육법이 채택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1847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프랑스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승인하는 동일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마찬가지로 1850년에 뉴멕시코 주(당시에는 준주)에서 스페인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승인하는 동일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약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 외의 지역에서도 국가의 승인 없이 노르웨이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체로키어와 같은 다양한 언어로 이중 언어 교육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민자 차별 및 연방 정부의 엄격한 이민법 제정으로 인해 이민자 인구가 감소하면서 2세대 이민자들은 그들의 모국어 사용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1920년대 중반까지 이중 언어 교육은 인기를 잃었으며, 대부분의 공립 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이 사라졌다(Ovando & Combs, 2012: 60). 그 후 1968년에 이중 언어 교육법(BEA: 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이 통과되었고, 동시에 연방 기금을 제공하여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의 모국어 교육을 통합하는 접근 방식을 시도하도록 장려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주도에 따라 자체 이중 언어 교육법을 제정하거나 교실에서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고, 소수 민족 학생, 특히 영어 학습자의 학교 교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중 언어 교육이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⁴⁾ 이중 언어 교육법은 소수 언어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 최초의 포괄적인 개입이었다.⁵⁾

미국은 2021년 11월 기준 이민자 인구가 4620만 명을 돌파하여 1850년 첫 인구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이민자 수를 기록하는 등 인구 통계가 변화하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중 언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공감 능력 증진,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굳건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3. GUSD의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많은 이들이 영어와 목표어가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기 위해 이중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중 언어 사용, 즉 영어와 목표어 두 언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숙달도, 이중 문해력, 높은 수준의 영어와 목표어의 학업 숙달도, 다문화 능력,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높은 자존감의 발달에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국어 및 다문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양방향으로 문해가 가능한 학생을 양성하는 데 있다. 유치원 준비반(TK) 또는 유치원(K)에서 고등학교 3학년(12학년)까지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업적으로나 언어 구사 면에서 두 언어가 모두 고급 수준이 되고, 양쪽의 언어, 문화, 사회를 두루 이해하며, 미국 문화가 지닌 특수성을 자각하고 한국문화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보편성을 이해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문화 숙달도를 성취하여 문

4) 이후 법 개정과 함께 여러 번의 재승인(1974년, 1978년, 1984년, 1988년, 1994년)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Gloria Stewner-Manzanares(1988)의 “The Bilingual Education Act: Twenty Years Later”(이중 언어 교육법: 20년 후)를 참조할 수 있다.

5) 문제는 우리 학령기의 많은 아이들이 모국어와 영어가 아닌 가정에서 온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한다.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 법안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효과적인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열의와 지지를 받았다(US Congress 1967:37037; Bangura & Muo, 2001: 58에서 인용).

화 간 소통자로 성장하리라 기대된다.

Chin(2015)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생이 자신의 모국어(비영어)로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위한 몰입 모델(Immersion model) 중에서도 학생 그룹을 두 가지 언어로 가르치는 몰입 모델이 널리 사용된다. 두 언어 그룹의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으면 양방향 몰입 모델로 간주되고, 하나의 언어 그룹만 교실에 있는 경우 단방향(일방향) 모델로 간주된다. 양방향 몰입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과 다른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을 위한 언어 학습 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제공되지만 12학년까지 제공될 수도 있다. Thomas & Collier(2002, 2003, 2004, 2012, 2020) 등에서는 30년 이상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주에서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영어가 영어만 사용하는 학생의 영어 평균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선 여러 연구(6)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양방향 이중 언어 몰입(TWBI: Two-Way Bilingual Immersion) 학생들이 영어 외의 과목에서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⁷⁾ 학업 외에도 양방향 이중 언어 몰입 학생들이 비(非)-TWBI 학생들과 비교하여 2개 국어를 구사하고 가족과 소통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신들과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미국 교육부(2020)⁹⁾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이점	교육적 이점	사회문화적 이점	경제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기능 -주의 통제 -작업 전환(정신 유연성) · 노화 관련 인지 쇠퇴의 시작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음 · 향상된 지적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전용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임 · 다양한 과목에서 학습 성과가 향상됨 · 이민자 자녀 중 고등학교 졸업률이 높음 · 창의성 수준이 향상되도록 함 · 추상적 사고와 추론의 더 높은 수준을 촉진 · 미래의 언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언어학 인식 향상을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언어 문화의 이해 · 공감 능력 향상 · 헤리티지 문화와의 연결 강화 · 글로벌 인식 촉진, 차별 감소, 자존감 향상, 더 강력한 교차 그룹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직업 기회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 · 이중 언어 사용이 직업적 지위와 잠재적 수익을 높임 · 언어 능력은 연방 정부에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많음

〈표 1〉 이중 언어 사용의 이점

6) Esposito & Baker-Ward, 2013; Genesee et al., 2006; Genesee & Lindholm-Leary, 2013; Lindholm-Leary, 2001, 2014, 2016a, b, 2018, 2019; Lindholm-Leary & Block, 2010; Lindholm-Leary & Borsato, 2005; Lindholm-Leary & Ferrante, 2005; Lindholm-Leary & Genesee, 2010; Lindholm-Leary & Hernández, 2011, 2018; National Academies, 2017; Paradis, Genesee, Crago, & Leonard, 2010; Steele et al., 2018 등.

7) Steele et al., 2016; Steele et al., 2018; Watzinger-Tharp, Rubio & Tharp, 2018; Watzinger-Tharp et al., 2016. 12 For reviews, see Esposito & Baker-Ward, 2013; Genesee et al., 2006; Genesee & Lindholm-Leary, 2013; Lindholm-Leary, 2001, 2014, 2016a, b, 2018, 2019; Lindholm-Leary & Block, 2010; Lindholm-Leary & Borsato, 2005; Lindholm-Leary & Ferrante, 2005; Lindholm-Leary & Genesee, 2010; Lindholm-Leary & Hernández, 2011, 2018; National Academies, 2017; Paradis, Genesee, Crago, & Leonard, 2010; Steele et al., 2018. 13 Lindholm-Leary & Genesee, 2010, Lindholm-Leary, 2016a; Lindholm-Leary & Hernández, 2011 등.

8) Block, 2014; Lindholm-Leary, 2016b.

9) <https://ncela.ed.gov/files/announcements/20200805-NCELAInfographic-50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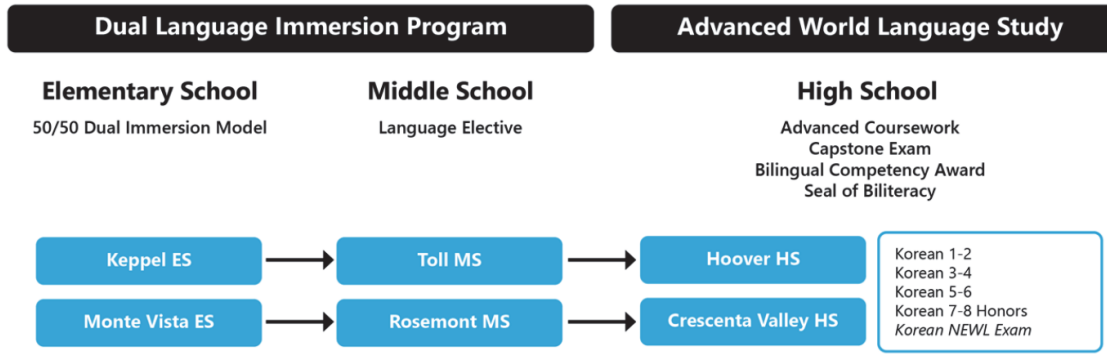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각 언어의 수업 시간 비율에 따라 90:10 모델, 80:20 모델, 70:30 모델, 50:50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90:10 모델과 50:50 모델이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90:10 이중 언어 몰입 모델은 하루 중 90%는 목표 언어를 사용하고 10%는 영어를 사용한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영어가 10%씩 증가하고 목표 언어는 10%씩 감소하여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며, 유치원 90:10, 1학년 80:20, 2학년 70:30, 3학년 60:40, 4학년 50:50으로 목표어와 영어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50:50 이중 언어 몰입 모델은 하루 중 50%는 목표어를 사용하고 50%는 영어를 사용하며, 유치원부터 5/6학년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많은 수의 영어 학습자가 있는 지역의 이중 언어 교육에 적합한 모델로 꼽힌다.

90:10 모델							50:50 모델						
하루 중 90%를 목표 언어로 가르침 4학년 때 50:50에 도달							하루 중 50%를 목표 언어로 가르침 5/6학년까지 50:50 유지						
DL	K	1	2	3	4	5/6	DL	K	1	2	3	4	5/6
90/10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50/50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표 2〉 90:10 이중 언어 몰입 모델과 50:50 이중 언어 몰입 모델

GUSD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일본어, 한국어 이상 7개 언어의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는 목표어와 영어의 90:10 프로그램 모델을 사용하며, 유치원에서 90:10으로 시작하여 5학년이 되면 50:50으로 조정된다.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아르메니아어, 일본어, 한국어는 목표어와 영어의 50:50 프로그램 모델을 사용하여 하루 중 50%는 목표어로 수업을 듣고 50%는 영어로 수업을 듣는다. 현재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과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아래와 같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90:10과 50:50의 양방향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의 성과를 비교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두 모델에서 모두 이중 언어, 이중 언어 문식성, 학년 이상의 성취, 긍정적인 태도 향상 등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¹⁰⁾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는 같은 그룹에 있는 영어 원어민 화자(NES: Native English Speaker)와 영어 학습자(EL: English Learner) 모두 50:50 프로그램과 90:10 프로그램에서 높은 수준의 영어 숙달도를 보여주었다.

10) Collier & Thomas, 2017; Lindholm-Leary (2001, 2016a,b, 2018, 2019); Lindholm-Leary & Hernandez, 2011, 2018



〈그림 1〉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GUSD의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FLAG 프로그램이라 칭한다. 이는 글렌데일 외국어 아카데미(FLAG: Foreign Language Academies of Glendale)의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GUSD에는 2003년 이전에도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존재하였지만, 영어로만 교육을 의무화한 법안 277(Proposition 227)로 인해 모든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글렌데일의 다양한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03년 에디슨 초등학교에서 영어와 목표어를 가르치는 자발적인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인 FLAG가 시작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로 확장되었다.

현재 GUSD에서는 유치원 두 곳,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¹¹⁾ GUSD의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3년간의 연방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07년 글렌데일(Glendale)에 위치한 마크 케플 초등학교(Mark Keppel Elementary School)에서 처음 시작하여 2010년에는 라크레센타(La Crescenta)¹²⁾에 위치한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Monte Vista Elementary School)로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 중학교 두 곳에도 FLAG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고등학교 두 곳에도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다.

GUSD의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양방향 50:50 언어 몰입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의 교과 과정 안에서 두 명의 교사가 각각 영어와 한국어로 같은 그룹을 가르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루의 50%는 영어로, 나머지 50%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게 된다. 일과의 반이 지나면 한국어반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영어반 교실로 이동하고, 영어반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한국어반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을 영어 교사와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한국어 교사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다

권장되는 주당 최소 교육 시간(Recommended Weekly Minimum Instructional Minutes)은 과목 및 학년에 따라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https://www.gusd.net/Page/1536>

12) 남쪽과 서쪽으로는 Glendale, 동쪽으로는 La Cañada Flintridge, 북쪽으로는 Angeles 국유림과 접해 있는 라크라센타는 LA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독립된 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GUSD)에서 관장한다. 인종 구성으로는 백인 61.06%(12,022명)에 이어 아시아인이 27.83%(5,479명)를 차지하고 있다.

과목	유치원 준비반 유치원	1~3학년	4~6학년
언어(Reading, Language Arts)	425	600	580
수학(Mathematics)	150	300	300
과학과 건강(Science and Health)	100	150	200
역사/사회(History/Social Science)	100	150	200
시각과 공연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	100	100	100
체육(Physical Education)	75	100	120
놀이와 탐험/영양 (Supervised Play and Exploration/Nutrition)	50	N/A	N/A
주당 총 시간(분)	1000	1400	1500
연간 총 시간(분)	40,500(유치원 준비반) 42,300(유치원)	51,300	54,900

〈표 3〉 주당 최소 교육 시간

유치원 준비 과정과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425분의 언어 수업을 듣는다. 학생들이 배우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므로 425분을 2로 나누면 언어당 약 212분이다.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언어 과목의 주당 최소 수업 시간이 600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언어당 300분(5시간)이다.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언어 과목의 주당 최소 수업 시간이 580분으로, 언어당 290분(약 4.83시간)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한국어(KLA: Korean Language Art) 수업을 듣고,¹³⁾ 여기에 더하여 수학, 사회, 과학 등도 한국어로 배우며, 수학, 과학, 사회 등은 내용 영역(콘텐츠 리터러시)에 읽기 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GUSD의 외국어 기준을 보면 한국어 레벨1, 레벨2, 레벨3을 설정하였으며, 각 레벨에 따른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문화의 상세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FLAG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마크 케플 초등학교와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의 학년별 FLAG 학급 수는 아래와 같다. 마크 케플 초등학교는 5학년이 최고 학년이고, 6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표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N/A)으로 표시하였다. 두 학교는 같은 교육구에 속해 있으나, 마크 케플 초등학교의 한국어 FLAG 프로그램에는 비한국계 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데 반해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의 한국어 FLAG 프로그램에는 한국계 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한 언어는 영어이다. 이 점에서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이 있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학교들과 차이가 날 수 있다.

13)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제이와이북스에서 출간한 한국어 시리즈와 다락원에서 펴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시리즈이다.

학년	마크 케플 초등학교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
유치원	2개 학급	2개 학급
1학년	2개 학급	2개 학급
2학년	2개 학급	2개 학급
3학년	2개 학급	2개 학급
4학년	1개 학급	2개 학급
5학년	1개 학급	2개 학급
6학년	N/A	1개 학급

〈표 4〉 2021-22학년도 초등학교의 FLAG 학급 수

이렇게 한국어 FLAG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 FLAG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마크 케플 초등학교(1~5학년)를 졸업한 FLAG 학생들은 톨 중학교(6~8학년)로 진학하고, 이후 후버 고등학교(9~12학년)로 진학하여 한국어 공부를 지속한다. 마찬가지로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1~6학년)를 졸업한 FLAG 학생들은 로즈몬트 중학교(7~8학년)로 진학하고, 이후 크레센타 벨리 고등학교(9~12학년)로 진학하여 한국어 공부를 지속한다. 두 학교는 교육 과정 편제가 상이한데, 마크 케플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톨 중학교 1학년은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 6학년과 동급생이다. 그러므로 톨 중학교의 6학년 학생들은 FLAG 프로그램 안에서 한국어 외의 과목도 공부한다. 학년당 학생 수가 학급 구성 최소 인원을 밑돌 경우 7학년과 8학년을 통합하여 〈FLAG 한국어〉를 가르친다. 로즈몬트 중학교는 7학년에 〈FLAG 한국어 1-2〉가 개설되어 있고, 8학년에 〈FLAG 한국어 3-4〉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FLAG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비한국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1〉도 8학년에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 편제에 따라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7학년 1학기에는 〈한국어 1〉을, 2학기에는 〈한국어 2〉를 공부하고, 8학년 1학기에는 〈한국어 3〉을, 2학기에는 〈한국어 4〉를 공부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한국어 5-6〉부터 시작된다. 현재 두 중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모든 수업은 한 개 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사는 두 학교 모두 1명이 있다.

학년	톨 중학교	로즈몬트 중학교
6학년	FLAG 한국어	N/A
	FLAG 과학	
	FLAG 사회	
7학년	FLAG 한국어	FLAG 한국어 1-2
8학년		FLAG 한국어 3-4
		한국어 1

〈표 5〉 2021-22학년도 중학교 한국어 수업 개설 현황

FLAG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2개 학기 1년 과정인 〈한국어 5-6〉과 〈한국어와 문화 7-8 HONORS〉를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다. FLAG 프로그램 밖에 있었던 학생의 경우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싶으면 〈한국어 1-2〉부터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다. 한국계 학생의 경우 자체 평가 시험을 통해서

9학년은 <한국어 5-6>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10학년부터는 자체 평가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한국어와 문화 7-8 HONORS>를 수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한국어 학습 기간이 짧으므로 교육구에서 수여하는 상이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여하는 인장을 받을 수 없다. <한국어와 문화 7-8 HONORS>의 경우 과목 이름에 ‘HONORS’가 붙는데, 이는 가장 수준 높은 우등반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기본 학점 외에 추가점(가중평점)이 부여된다. 또한 교과서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EPIC KOREAN 4』 외에도 『뉴얼 코리안 프렙 북(NEWL-KOREAN PREB BOOK)』¹⁴⁾과 소설 『푸른 사자 와니니(Blue Lion Wanini)』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한국어 수업과의 차이이다. 현재 두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후버 고등학교에는 모든 한국어 수업이 한 개 반이 개설되어 있고, 크레센타 벨리 고등학교에는 <한국어 1-2> 3개 반, <한국어 3-4> 2개 반, <한국어 5-6> 1개 반, <한국어와 문화 7-8 HONORS> 1개 반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교사는 후버 고등학교에 1명, 크레센타 벨리 고등학교에 2명이 있다.

학년	후버 고등학교	크레센타 벨리 고등학교
9~12학년	한국어 1-2	한국어 1-2
	한국어 3-4	한국어 3-4
	한국어 5-6	한국어 5-6
	한국어와 문화 7-8 HONORS	한국어와 문화 7-8 HONORS

〈표 6〉 2021-22학년도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 개설 현황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 교육구에서 수여하는 Glendale Unified Bilingual Competency Award를 받을 수 있으며, Glendale Unified Certificate of Bilingual Competency와 함께 은메달(영어 외 1개 언어) 또는 금메달(영어 외 2개 이상 언어)이 수여될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능력 증명이 졸업장에 특별 인장(seal)으로 표시된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여하는 CA State Seal of Biliteracy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영어 외 1개 이상의 언어로 말하기, 읽기 및 쓰기에 높은 수준을 달성한 고등학생에 대해 주정부 교육감이 그 능력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에 금색 인장으로 표시된다.

이상으로 GUSD의 FLAG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현재까지 1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 중인 한국어 FLAG 프로그램은 교육구의 모든 FLAG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한국어 FLAG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티처 스페셜리스트(Teacher specialist), FLAG 한국어 학습을 담당하는 여러 한국어 교사 및 영어 교사 등 관련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잠재적으로 한국어 FLAG 프로그램의 발전과 지속을 저해할 만한 다음과 같은 위협 요인이 있다.

첫째, 초등학교를 졸업한 FLAG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비(非)FLAG 학교로 진학하거나 FLAG 한국어 프로그램

14) NEWL KOREAN은 한국어 숙달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매년 4월에 치러진다. 시험 구성은 읽기(60분), 듣기(45분), 말하기(45분), 쓰기(45분)로, 시험 점수는 AP 시험과 같이 1~5점으로 채점한다. NEWL, 즉 외국어 국가 시험(NEWL: National Examination for World Language)은 미국 국제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주도로 시행되는 AP(Advanced Placement)와 동일한 언어 성취 국가 시험이다. 이는 미국국제교육위원회(ACIE)에서 주요 외국어(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시험이다. ACIE에서 개발된 NEWL 외국어 시험은 미국방부와 연방 정부 및 미외국어교사협회(ACTFL)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컬리지보드도 뉴얼 시험을 AP시험 대체 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다. 컬리지보드는 2017년 공식적으로 NEWL 시험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내 대학을 포함한 6000개 이상의 회원 기관에 이 시험을 AP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개설된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다른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생 수 축소로 인해 두 반이 한 반으로 통합되어 콤보(COMBO)반¹⁵⁾으로 운영되거나 학생 유치가 장기간 어려워질 경우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교육구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특성상 교육구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서 수업을 없애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절약되는 경제 논리가 성립된다. 학생들이 타 학교로 떠나거나 한국어 대신 다른 선택 과목을 수강하거나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가족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집값 상승과 더불어 주택 부족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 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과 이민 행정 정책 등도 외국어 프로그램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8월에 시작되는 2022-2033학년도 새 학기(1학기)의 학교 등록이 모두 끝난 지금, 한국어 FLAG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므로 한국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에 대한 안팎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및 홍보가 요구된다.

둘째, FLAG 한국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 특히 저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적응 여부일 것이다. 비한국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내용과 범위가 넓어지고 방대해지며, 요구되는 지식이 복잡해진다. 이에 비한국계 부모를 둔 학생이나 한국계 부모를 두었더라도 부모가 이민 2세대에 속하여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어에 노출되거나 목표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FLAG 학생과의 언어 능력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학생별로 언어 능력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목표어로서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타 교과 수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국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학습에서 뒤처지게 될 경우 장기 학습 부진에 빠지게 되고, 학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안에서 한 그룹과 다른 그룹 학생들의 수학 능력 차이가 벌어지고 동일한 수업 안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현상, 즉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에 적응하지 못하고 목표어인 한국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각각의 수업에서 목표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수학 능력을 보이게 되고, 이는 FLAG 프로그램 이탈로 귀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것은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업 부진에 빠지지 않고 목표어 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잃지 않도록 이들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교육 및 학습 지원 체계가 적시에 반드시 필요하다.

4.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특성

3장에서 주로 초등학교 과정에 무게를 실어 논의한 만큼, 4장에서는 GUSD의 중·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올해부터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한국어 교재 <EPIC KOREAN> 시리즈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도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재미동포 아동들, 즉 한국어를 계승어로 학습하는 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재들도 출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재의 선택지가 있는 초등학교와 달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재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국내 한국어 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출간 교재들이 다루는 내용은 하나같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지의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학생들 중에는 한국을 알지만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결과 재미동포 학습자군이라는 상황과

15) 콤보란 'combination'의 약자이며, 학생 인원이 감소하였을 때 본래의 두 학급을 한 학급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성을 교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동시에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한국에만 존재하거나 교수가 불필요하거나 이들에게 매우 생소한 취업, 회사생활, 유학생생활, 결혼 등의 주제 및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문장들이 교재 곳곳에 나타난다. 대다수의 한국어 교재는 교재마다 비슷한 주제, 기능, 내용 등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한국어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국내 대학에서 펴낸 교재들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한스 ‘씨’와 같은, 중·고등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호칭이 매우 자주 나온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학생들을 겨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원’이 사용된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외국어 교육 학습 기준에 따라 어휘와 문법이 중심이 아니라 말하기 위주의 학습에 익숙해져 있고, 두 언어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받아 왔기 때문에 국내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교재들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들 교재에서 다루어지거나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교재에서 배운 내용이 여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미국 현지에서 한국계와 비한국계를 포함한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는 여기 학생들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부합해야 하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 경험할 만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와 내용을 다룸으로써 일차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 동기와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 집, 동네, 지역사회 등을 반영한 주제와 맥락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21년 한국어진흥재단은 올컬러판으로 만들어진 <EPIC KOREAN>이라는 새로운 교재를 1권부터 4권까지 펴냈고, 2021-2022학년도부터 GUSD의 한국어 수업에서는 이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EPIC KOREAN 1권부터 4권까지

이 책은 <EPIC KOREAN>, <EPIC KOREAN WORKBOOK>, <EPIC KOREAN TEACHER EDI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텍스트북과 워크북을 전자책(Ebook)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크롬북 등을 이용해 교재를 볼 수 있으며, 전자책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곧바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육 학습 기준에 맞추어 문법 위주가 아니라 회화 위주의 학습을 염두에 두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고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미국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수렴하여 탄생시킨 15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교과서이며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및 ACTFL에서 제시하는 미국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육 표준(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¹⁶⁾ 단원별로 구성과 채재가 매우 촘촘한데, 공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권과 2권은 총 12개 챕터로 구

16)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7년간 교양대학, 국어국문학과,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 등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분

성되어 있고, 3권과 4권은 총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3권과 4권을 기준으로 한 단원을 끝내는 데 보통 3주 정도가 소요된다.

①INTRODUCTION → ②Key Words and Expressions (New Vocabulary, Useful Expressions, Review, More to Go!) → ③Pronunciation Guide → ④Key Language Patterns(Exercise, Interpretive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 ⑤Real World Communication(Let's Answer, Let's talk, Let's read, Let's Present, Let's Apply)→ ⑥NOW I CAN → ⑦Let's Explore More!(Connections(Let's Think Critically), Communities, Cultures, Comparisons) → PROJECT

〈표 7〉 한국어 교재의 단원별 구성과 채재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ACTFL에서 제시한 3가지의 소통 방식인 대면 커뮤니케이션, 해석 커뮤니케이션, 발표 커뮤니케이션 등을 교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연습 및 활동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에는 말하기와 듣기(대화, 전화), 읽기와 쓰기(문자 메시지 읽기/쓰기, 소셜 미디어 메시지 읽기/쓰기, 편지 읽기/쓰기)가 대표적이고, 해석 커뮤니케이션에는 실제적인 텍스트 읽기(웹사이트 자료, 수필, 시, 소설, 동화, 기사, 광고, 안내문), 실제적인 텍스트 듣기(연설, 안내, 노래, 뉴스, 광고), 실제적인 자료 보기(비디오, 영화, TV쇼, 드라마, 발표, 광고, 뉴스, 연극, 뮤지컬)가 대표적이며, 발표 커뮤니케이션에는 쓰기(편지, 기사, 광고, 전단지, 책자, 짧은 이야기, 보고서, 대본, 발표문), 말하기(이야기, 연설,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뉴스 진행, 드라마 또는 영화 장면 대화, 토론)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문장 연습에서부터 실제 상황 맥락을 포함한 의사소통 활동까지 각 단원의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이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조직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회 및 문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⑦Let's Explore More!(Connections(Let's Think Critically), Communities, Cultures, Comparisons)은 모두 사회와 문화 활동에 해당한다. 주제와 내용의 면면을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문화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한국문화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양질의 교육 자료들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교육은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활동을 통해 비교 및 대조되어야 하는데, 이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 문화가 지닌 특수성을 자각하고 한국문화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보편성을 이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문화 숙달도를 성취하여, 문화 간 소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언어 교육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문화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담화를 함께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설정한다. 전통문화를 지나치게 소개 위주로 구성하거나 10대인 학생들의 현실 경험과 괴리된 문화는 상당 부분 제외하는 등 교재 내의 문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며 현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 온 학생들의 한국어 숙달도에 비해 책에서 제시하는 목표 문법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문화 8 HONORS〉에서 사용하는 〈EPIC KOREAN 4〉의 목표

연구자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교재이다. 오디오가 전자책에 내장되어 있으며 이북에 필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완전 컬러판 하드커버 제작, 네 권의 모든 챕터에 대한 어휘 및 문법 내용을 퀴즐렛 플래시카드로 제공하는 등 상당히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문법 목록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다.

챕터	목표 문법
1	-이라고/라고 합니다, -아/어 본적이 있다/없다, -아/어 주다/드리다
2	-이나/나, -으면서/면서, -겠-
3	-으니까/니까, -아서/어서, -기로 하다
4	-으려고/려고 하다, -으려면/려면, -을/르 줄 알다/모르다
5	-이야/야, -이니/니?, -아/어, -았어/었어, -니, -았니/었니?, -을까/을까?, -을래/래? 네, -지?
6	-자, -아/어, -거든, -잖아, -다, -이다/다, -는다/니다
7	-고 한다/합니다/해요, -기 때문에, -을/르 만하다
8	-은/ㄴ 후에, -게 되다, -은/ㄴ 지 ~되다
9	-는지/ㄴ지 알다/모르다, A-을/를/한테 B-이라고/라고 부르다/하다, -았겠어요/었겠어요
10	-아지다/어지다, -도록, -(으면/면) -을수록/르수록

〈표 8〉 EPIC KOREAN 4의 목표 문법 목록

책에서 목표 문법으로 제시되는 문법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법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교재임을 고려할 때 목표 문법으로 제시되는 문법 항목들의 난도가 FLAG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뉴스 기사, K-POP, 소셜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나, 이처럼 주가 되는 교재의 수준이 학생들의 실제 수준과 차이가 크고 이미 학생들이 아는 지식이라면 학생들의 수업 몰입이나 흥미를 떨어뜨리고, 꾸준한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과 동력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 요구 분석과 교사 요구 분석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재의 난이도, 내용과 활동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이는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이 말하기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여전히 기본적인 조사 누락 오류나 조사 교체 오류, 시제 오류, 동사 및 형용사 활용 오류, 자모 철자 오류 등 기초적인 오류가 학생들의 문장이나 글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반복된다. 이에 다른 영역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생략)

■ 참고문헌 ■

- 김춘수(2021), 한국 이중언어 교육의 대상과 방식 확장을 위한 제언, *다문화사회연구* 14-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69-100.
- Block, N. (2012). Perceived impact of two-way dual immersion programs on Latino students' relationships i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5(2): 235-257.
- Collier, V.P., & Thomas, W.P. (2017). Validating the power of bilingual schooling: Thirty-two years of largescale, longitudinal research.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7, 203-217.
- Espósito, A.G., & Baker-Ward, L. (2013). Dual-language education for low-income children: Preliminary evidence of benefits for executive function. *Bilingual Research Journal: The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36:3, 295-310.
- Galloway, E.P., Uccelli, P., Aguilar, G., & Barr, C.D. (2020). Exploring the cross-linguistic contribution of Spanish and English academic language skills to English text comprehension for middle-grade dual language learners. *AERA Open* 6(1), 1-20.
- Genesee, F., & Lindholm-Leary, K. (2013). Two case studies of content-based language education. *Journal of Immersion and Content-Based Language Education*, 1(1), 3-33.
- Genesee, F., Lindholm-Leary, K.J., Saunders, W., and Christian, D. (2006). *Educat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ward, E. R., Lindholm-Leary, K. J., & Rogers, D., Olague, N., Medina, J., Kennedy, B., Sugarman, J., & Christian, D. (2018). *Guiding Principles for Dual Language Education* (3rd ed.).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indholm-Leary, K. J. (2001). *Dual Language Education*. Av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Lindholm-Leary, K. (2014). Bilingual and biliteracy skills in young Spanish-speaking low-SES children: impact of instructional language and primary language profici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7(2), 144-159.
- Lindholm-Leary, K. (2016a). Bilingualism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in dual language programs. In E. Nicoladis & S. Montanari (Eds.), *Lifespan perspectives on bilingualism*, Washington DC: APA Books.
- Lindholm-Leary, K. (2016b). Students' perceptions of bilingualism in Spanish and Mandarin dual language programs. *International Multilingual Research Journal*, 10(1), 59-70.
- Lindholm-Leary, K. (2018). Developing Spanish in dual language programs: Preschool through twelfth grade. In K. Potowski (Ed.), *Handbook of Spanish as a Minority/Heritage Language*. New York NY: Routledge.
- Lindholm-Leary K. (2019).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rajectories of Latino EL students in dual language programs. *NAB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9(1), 114-129.
- Lindholm-Leary, K.J., & Block, N. (2010). Achievement in predominantly low-SES Hispanic dual language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1), 1-18.
- Lindholm-Leary, K. J., & Borsato, G. (2006). Academic achievement. In F. Genesee, K. Lindholm-Leary, W. Saunders, and D. Christian (Eds.), *Educat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pp. 157-179. NY: Cambridge.
- Lindholm-Leary, K., & Genesee, F. (2010).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Eds.), *Improving Education for English Learners: Research-Based Approaches*, pp. 323-382. Sacramento: CDE Press.
- Lindholm-Leary, K. & Hernandez, A. M. (2011). Achievement and language proficiency of Latino students in dual language programmes: Native English speakers, fluent English/previous ELLs, and current ELL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32(6), 1-15.
- Lindholm-Leary, K., & Hernandez, A. (2018, October). The Forgotten Group: Understanding Initially Fluent English Proficient Students in Dual Language Programs. *Language Magazine*, pp. 38-41.

- Lindholm-Leary, K. J., & Howard, E. (2008). Languag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wo-way immersion programs. In T. Fortune & D. Tedick (Eds), *Pathways to bilingualism: Evolving perspectives on immersion education*. Av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Promoting the educational success of children and youth learning English: Promising future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Padilla, A., Fan, L., Xu, X., & Silva, D. (2013). A Mandarin/English two-way immersion program: Language profici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Foreign Language Annals*, 661–679.
- Paradis, J., Genesee, F., Crago, M., & Leonard, L. (2010). *Dual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A handbook on bilingualism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2nd edition.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 Co.
- Potowski, K. (2007). *Language and identity in a dual immersion school*.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Steele, J. L., Slater, R. O., Li, J., Zamarro, G., Miller, T., & Bacon, M. (2018). Dual-language immersion education at scale: An analysis of program costs, mechanisms, and moderato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0(3), 420–445.
- Steele, J. L., Slater, R. O., Zamarro, G., Miller, T., Li, J., Burkhauser, S., & Bacon, M. (2017). Effects of duallanguage immersion programs on student achievement: Evidence from lottery data.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4(1), 282S–306S.
- Tedick, D. J., & Lyster, R. (2019). *Scaffolding language development in immersion and dual language classrooms*. NY, NY: Routledge.
- Umansky, I. M., & Reardon, S. F. (2014). Reclassification patterns among Latino English learner students in bilingual, dual immersion, and English immersion classroom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1(5), 879–912.

〈토론〉 “미국 남가주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주요 쟁점과 과제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의 한국어 FLAG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효정(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미국 남가주 지역의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과 <EPIC KOREAN>이라는 새로운 한국어 교재를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역사가 깊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연구는 처음이어서 저를 포함해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연구의 의의와 개괄적 뜻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 이중언어 교육에서 영어 외 목표가 되는 언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언어 선정에 분명히 언어의 위상이나 헤게모니가 작용을 할 것인데,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싶은 학교가 교육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인지, 교장 선생님이 지역 다수 학생의 모국어를 목표 언어로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계가 아닌 학생들이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각 학교의 교사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양방향 몰입 모델, 즉 두 언어를 교실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 모델의 교육적 성과가 매우 훌륭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하루에 한국어 수업 반, 영어 수업 반으로 구성된 수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수업에 영어 교사와 한국어 교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수업은 없는지, 동일한 수업 내용을 영어와 한국어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수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 이중언어 교육은 현실적으로 두 언어를 모두 원어민처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차이도 클 것 같고요. 연구자께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내용과 범위가 넓어져 목표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학생의 경우에 언어 능력이나 학습 능력의 간극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중언어 몰입 교육은 영어를 제외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에게 더 적절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수학 능력에도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한국어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의 공통된 문제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연구자들은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자께서는 FLAG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비(非)FLAG 학교로 진학하거나 한국어 대신 다른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사례도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또한 모든 이중언어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라고 생

각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는 FLAG 프로그램의 연장이 아니라 선택 수업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만큼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하고 싶도록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문화 체험 같은 당근 정책이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과 학교에서 실행하셨고 성공하신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국어 교육이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이중언어, 다언어 교육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0년도에 표준한국어 교재를 집필하면서 과연 표준한국어란 무엇인지, 다문화 가정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언어와 문화를 상호 교육하는 방안을 표준한국어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오랜 시간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를 삶에서 접하며 살아오신 연구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찰력 있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중등언어교육 과정 및 평가와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현황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활용의 예-

강미란(Université du Havre Université de La Réunion, France)

케이 컬처(K-culture), 케이 라이프스타일(K-lifestyle)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또한 그렇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 교육 분야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점점 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중·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학습 시스템,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례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준이 되는 교육 과정 및 평가 방법은 2019년에 있었던 프랑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따르도록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그 차례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 고등학교에 한국어 정식 개설 배경 및 현황
-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 소개
-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설계, 교재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교수법

1. 프랑스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정식 개설 배경 및 현황

프랑스에서는 1956년 소르본느 대학(Sorbonne)에서 최초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59년에 동양어대학(INALCO)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열렸다. 1980년도부터는 지방 대학에도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1983년 리옹(Lyon)을 시작으로 1986년 보르도 (Bordeaux), 1987년 르 아브르(Le Havre), 2002년 라 로셸(La Rochelle), 2011년 엑스-마르세이유(Aix-Marseille) 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열렸다¹⁾. 현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공으로 하는 LLCE(Langue, Littérature et Civilisation Étrangère) 과정 및 한국어 실용외국어 과정 LEA(Langue Étrangère Appliquée) 등 한국어를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정식 채택되어 수업이 시작된 지는 11년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 자체에서 수강 가능 과목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교육부 및 그 학교 소속의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 등이 무척 까다로운 편이다. 프랑스 공립 고등학교에 수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그 수업을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적어도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교장은 물론

1) 프랑스에서의 한국학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앞장섰던 2세대 교육자이자 아펠락 회장을 역임한 리옹대학교 명예교수 이진명이 쓴 《프랑스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http://www.coreens.com/jalyosil/684>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필요하다. 그 후 해당 교육청에서 수업 개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학관은 물론 교육청장의 승인이 당연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담당할 교사의 계약 관련 예산 등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외국어 중 ‘아주 드문 언어’(langues rares)로 취급되던 한국어가 들어갈 장벽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중 2011년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보르도(Bordeaux) 교육청에서 제3 외국어²⁾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인가했고, 그때부터 프랑스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처음 시작한 곳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보르도 프랑수아 마장디 고등학교(Lycée général François Magendie)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9년부터 한국 문화 보급에 앞장서 중·고등학교에서 각종 문화 아틀리에를 조직했던 프랑스한국어문화교육자협회인 아펠락(AFELACC)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겠다. 프랑수아 마장디 고등학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교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2,3학년 총 8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있다. 또한 같은 해 파리에서는 파리 및 근교의 고등학생들을 한 데 모아 한국어 바칼로레아를 준비시키는 학교 간 연계프로그램을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 해인 2012년, 루앙(Rouen)의 카미유 생-상스(Lycée général Camille Saint-Saëns) 고등학교에도 제 3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다.

프랑스 고등학교, 그것도 사립 학교가 아닌 승인 절차가 꽤 어려운 공립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 모두 제 1언어가 프랑스어인 학습자들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이렇게 한국어가 외국어로 정식 채택되어 프랑스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런 학교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프랑스 각지 여러 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경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수업들은 위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교육청에서 인가하여 정식 수업으로 배정되고, 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입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아닌 곳이 아직은 많은 듯하다. 학교마다 조금씩 행정 절차는 다르겠지만 주로 특별활동과 결을 같이 하는 ‘아틀리에(atelier)’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혹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에 투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 또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매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은 물론 프랑스 교육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장과 학교 행정위원회를 인가를 거치면 공립학교에 비해 비교적 쉽게 통과가 되기도 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교육부와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립학교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밝혀 두기로 한다. 아직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공립학교가 많지 않은 데에는 아무래도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어는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정식교원임용시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프랑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2015년부터 시작된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개설이다. 파리 13구에 위치한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Collège Gustave Flaubert)에서 프랑스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제 2외국어(LVB)로 정식 개설한 것이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제 3외국어가 선택과목인데 반해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제2외국어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학교 때 선택한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2)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외국어(주로 영어)를 제 1외국어, 중학교부터 배우는 외국어를 제 2 외국어,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외국어를 제 3외국어로 부른다. 정식 명칭은 외국어A(Langue Vivante A, LVA), 외국어B(Langue Vivante B, LVB), 외국어C(Langue Vivante C, LVC).

학습해야 하며 바칼로레아 시험에서도 이 과목을 꼭 봐야 한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경우다. 게다가 2016년 11월에는 지금까지 선택 과목으로만 있었던 바칼로레아 한국어 시험이 제2외국어로서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다. 따라서 2017년도 바칼로레아부터는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되어 중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학생, 혹은 그만큼의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총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coefficient)도 4로 꽤 중요한 시험이 되었다. 물론 2019년 교육개정 이후 선택 과목인 제3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역시 바칼로레아에서의 반영 비율이 4로 올랐고, 보너스 점수로만 여겨지던 것이 수시평가 총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점은 2011년 이후 보르도 마장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이후 한국어교육 및 보급에 앞장섰던 모든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2017년 한국어 국제섹션 개설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섹션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이중언어 사용자이기도 하며 이중문화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다. 프랑스에서도 소위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한국어 전공반이 개설된 것이다. 이 섹션에 들어오면 유치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초등학교부터는 외국어(한국어)로 문학, 지리, 수학 등의 수업을 받게 된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육부 장관이 국제섹션에 관한 행정 약정을 서명하면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함께 교육하여 자연스러운 언어 소통 환경 속에서 상호간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심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 중 한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는 아직 한국인 부모, 혹은 한불 가정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점 학생수가 많아지고 있어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2016년에 프랑스 교육부와 르 아브르 대학의 최은숙 교수가 한국어 국제섹션의 중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 파리 근교인 쿠르브부아(Courbevoie)의 아르망 실베스트르 초등학교(école élémentaire Armand Sylvestre)와 레브뤼에르 중학교(Collège Les Bruyères)에서 한국어 국제섹션이 문을 열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테오 고티에 유치원(école maternelle Théo Gauthier)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였다. 또한 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보방 국제중학교(Collège International Vauban)에도 한국어 국제섹션이 문을 열었다. 2017년에 쿠르브부아 지역의 초등학교 국제섹션 한국어 반에 들어온 학생들이 2022년도 9월 학기부터는 고등학생이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쉽게도 현재 한국어 국제섹션을 개설한 고등학교는 아직 없다. 이 역시 양국 교육부는 물론 한국어 교육자들이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도전 과제로 보인다.

2. 외국어 교육 과정 및 평가 방법

여기서는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에서의 외국어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제1외국어(대부분 영어),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제2 외국어(스페인어, 독일어가 가장 많다),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제3외국어이다. 제1외국어(LVA)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는 ‘유럽 공동참조’ B1-B2가 되어야 하고, 제2외국어(LVB)의 경우 확실한 A2-B1, 제3외국어의 경우 A2-B1 근처의 실력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중학교의 경우 제 1외국어와 제 2외국어 수업이 진행되며, 둘 다 유럽공동참조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를 갖추고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외국어 수업이므로 당연히 언어 기능 중 읽기·텍스트 이해하기, 쓰기·텍스트를 읽고 그에 합당한 반응하기, 듣고 보고 이해하기, 몇 문장 이상 계속해서 말하기, 대화하기를 훈련하고 평가받게 된다. 중학교 외국어 수업에서는 다른 과목과의 융합 수업도 중요시 되는데 크게는 다섯 개의 주제로 융합수업이 이루어진다³⁾.

1) 언어 및 문화 이해하기 : 이 수업은 주로 프랑스어, 라틴·고대그리스어, 역사, 지리 수업 등과 연계하여 프랑스어와 비슷한 문화·언어권의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와 프랑스어의 비슷한 점,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보, 통신, 시민성 : 이 수업은 프랑스어, 역사, 지리, 윤리 수업 등과 연계하여 각 나라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프랑스와의 차이점, 비슷한 점을 알아내며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데 목표를 둔다.

3) 환경 문제 : 지리, 미술, 과학 수업 등과 연계하여 환경과 관련한 인간의 행동, 즉 보호나 예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외국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태계와 환경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토론하는 데 목표를 둔다.

4) 문화와 예술 활동 : 프랑스어, 미술, 역사, 지리 수업 등과 연계하여 상호 문화 관계를 이해하고 예술적 언어를 연구하며 각 나라의 예술품을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5) 경제 및 직업 세계 : 프랑스어나 기술 과목과 연계하여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 및 직업 세계의 차이점 등을 외국어를 통해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과 고2-고3 과정⁴⁾을 따르도록 한다. 각 과정은 8개의 중심 테마로 이루어지며, 그 중심테마에 맞는 세부적인 키워드가 주어진다. 외국어 담당 교사는 1년에 3-5개 정도의 테마를 택하고, 이 테마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주제로 하는 사진, 그림, 텍스트,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준비하여 시퀀스를 짜고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각 과정의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다.

고 1 과정 :

1)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2) 직업 세계, 3) 동네/마을/도시, 4)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과의 관계, 5) 스포츠와 사회, 6) 창조와 예술과의 관계, 7) 지구 구하기와 미래에 관한 생각, 8) 과거와 현재

고 2-3 과정 :

1) 정체성과 교류, 2)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3) 예술과 권력, 4) 시민성과 가상세계 5) 픽션과 현실, 6) 과학적 발전과 책임의 문제, 7) 다양성과 포용성, 8) 영토와 기억에 대한 문제

고등학교의 외국어 수업의 경우 위의 테마를 수업에서 다루되, 교사는 시퀀스를 설계할 때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 언어활동과 관련한 학습, 상호 문화와 관련된 학습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이라 함은 단어, 문법, 발음, 철자의 숙련 활동을 말한다. 언어활동과 관련한 학습은 받아들이기(reception), 만들어서 내보내기

3) 프랑스 교육부 중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 <https://eduscol.education.fr/164/langues-vivantes-cycles-2-3-et-4>

4) 프랑스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 <https://www.education.gouv.fr/bo/19/Special1/MENE1901585A.htm>

(production), 상호소통(interaction), 조정 및 중재(mediation),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리셉션에는 읽고, 듣고, 보고 이해하는 활동이 들어가며, 프로덕션에는 쓰기 활동은 물론 한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기가 들어간다. 상호소통의 경우 누군가와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하기, 즉 묻고 답하고 상황 설명 등을 하기, 대화 중 끼어들기 등의 기술과 이에 필요한 언어 요소를 배우게 된다. 조정 및 중재는 한 학생 혹은 그룹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학생이 도와주거나 프랑스어나 제 3의 언어로 보충 설명을 해 주는 단계이다. 상호 문화와 관련된 학습에서는 학생이 배우는 외국어가 속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각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와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발판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고등학교 자체의 성적 반영을 위한 1,2,3 외국어의 평가 방법은 유럽공동참조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평가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시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중·고등학교 과정은 1년에 총 3학기로 나뉘는데, 학교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당 2-5 번의 평가를 한다. 그러나 바칼로레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제 3 외국어의 경우 수시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반영된다. 앞서 잠깐 말했듯 교육개정 전과는 달리 이제 3외국어도 반영비율이 4로 꽤 높은 편이다. 반면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인 LVA와 LVB는 각 학교에서 세 번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우리나라처럼 수능 날 한 번에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개정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져 외국어 바칼로레아 시험은 아직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학교마다 시험을 조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올해 2022년 바칼로레아 역시 개정법을 따라 세 번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외국어처럼 수시평가 점수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개정법에 따른 평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는 총 세 번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바칼로레아 총점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고 2 때 읽고 이해하기와 쓰기 시험을 보며, 고 3 때는 두 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고 듣고 이해하기와 텍스트 이해하기 시험, 그리고 쓰기 시험과 말하기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다.

3.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설계, 교재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교수법

○ 교육개정 전과 후

필자는 앞서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과정 및 평가 방법을 2019년 개정안에 근거하여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가 제 3외국어로 정식 채택된 2011년부터 개정안이 발표된 2019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수업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전에는 외국어 수업의 경우 네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이후 8개로 바뀐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 방법이었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언어로 분류되어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다른 외국어 수업이나 평가 방법을 따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제3외국어 바칼로레아시험은 말하기 시험인데 반해 ‘드문 언어’로 분류되었던 한국어는 쓰기시험을 봐야 했다. 한국어가 처음 열린 마장디 고등학교에 2011년에 고1로 들어오고 2013년에 바칼로레아를 본 학생들은 앞서 말했듯이 모두 프랑스어가 제 1언어인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바칼로레아 한국어 시험은 대부분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 출신 혹은 한불가정에서 나고 자란 학습자들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정식으로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독학했거나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도 자유선택으로 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으나 아주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프랑스어권 학생들에게는 수준이 높은 시험이었다. 게다가 쓰기 시험이라 부담도 컸고, 원래 외국어 바칼로레아를 보는 5월이 아닌 3월에 진행되어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할 시간도 많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그 후 한국어 바칼로레아를 보는 프랑스어권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며 시험 수준에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쓰기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와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제 3외국어의 경우 특히 말하기와 소통하기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만 한국어의 경우 쓰기 시험을 봐야 하므로 수업에서 역시 말하기는 물론 문법과 읽기, 쓰기 역시 신경을 써야 했다. 또한 시험 수준이 꽤 높았던 관계로 학생들의 부담도 컸다. 그러던 중 2019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외국어 수업 과정 및 평가방법도 달라졌다. 그리고 제 3 외국어 바칼로레아 시험이 없어지고 수시평가 점수가 반영됨에 따라 한국어 역시 여느 제 3언어와 같은 교육 과정 및 평가방법을 따르게 된 것이다.

○ 한국어 교재 개발 역사

2011년 보르도 프랑수아 마장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프랑스어권 고등학생들을 위한 기본 교재가 필요했다. 그때까지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위한 교재는 있었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 4월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과 한국어 교사가 모여 교재개발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주프랑스 대사관의 교육원과 아펠락 협회의 지원으로 2011년 9월 개학에 맞춰 교재 1차 복사본을 만들어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프랑스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를 배웁시다! *Apprenons le coréen !*』가 보르도 대학교 출판사에서 정식 출판되었다. 2022년 현재 『한국어를 배웁시다! *Apprenons le coréen !*』는 1권(A1-A2), 2권(A2-B1), 3권(B1-B2)을 비롯하여 각 권마다 연습문제집까지 나와 있다. 1권의 경우 초판, 개정 1판, 개정 2판까지 나왔고 2권의 경우도 초판을 거쳐 개정 1판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는 한국어 국제색션 학생들 및 고등학교 이후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대학생 등을 위한 4권(B2-C1) 작업이 진행 중이다.

○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 교재 활용, 교수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역시 위에 설명한 프랑스 교육부의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테마를 선정하여 수업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물론 제 3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경우 한글 배우기부터 시작하는 초급자들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고등학교 외국어 프로그램 중 ‘언어 자체에 관한 수업’, 즉 단어, 문법, 발음, 철자의 숙달을 위해서는 이나 여러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배웁시다! *Apprenons le coréen !*』를 사용하고 있다. 1학년에서 1권, 2-3학년들은 2권과 3권을 참고하며 ‘언어 자체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배웁시다! *Apprenons le coréen !*』의 연습문제와 문화 부분은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를 위한 교재로도 쓰이고 있다.

언어활동과 관련한 학습 및 평가 부분은 위에 언급한 8개의 테마 중 3-4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시퀀스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여기서 시퀀스라 함은 프랑스 외국어 수업의 구

성단위로, 한 시퀀스는 여러 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한 테마 당 한 개의 시퀀스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랑스의 초중고 수업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본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은 당연히 따르되 세부적 내용은 교사의 역량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의 경우 언어 자체를 위한 교육, 언어활동과 관련된 교육, 문화 관련 교육이라는 큰 틀이 정해져 있고, 8개의 테마와 그와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공동 참조 기반 평가표가 주어지고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시퀀스를 짜느냐는 교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장학사가 수업에 참관하여 교사의 수업 태도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므로 수업의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교육청마다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마련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배워야 할 내용을 크게 벗어난 수업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적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어 수업 역시 마찬가지다.

한 시퀀스에 사용되는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교재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사진, 그림,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이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되도록 수정은 피하되, 비언어 정보가 없는 오디오의 경우 화자의 말 속도를 조금 느리게 편집하기도 한다. 오디오나 비디오는 1분 30초 - 2분 정도로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은 그대로 쓴다. 글로만 된 텍스트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도록 공백 포함 400자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한 한국어 수업의 한 예다. 필자는 현재 보르도 프랑수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따라서 직업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퀀스의 일부분만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한국어 수업의 예를 제시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프랑스 중등교육에서의 한국어 수업 역사는 아직 길지 않다. 지금은 케이 컬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한국어가 인기 있는 과목으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우선 프랑스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인정해 정식임용시험이 마련되기를, 이와 더불어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학교가 더 많아질 길 기대해 본다.

프랑스 외국어 교육과정을 따른 한국어 수업 시퀀스의 일부분 예

- ✓ 테마 : 고 1 과정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 ✓ 기대 수준 : A1
- ✓ 자료
 - 비디오 자료 :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가족 관계 호칭이 쓰이는 부분 발췌
 - 사진 : 한국 가족의 사진, 프랑스 가족의 사진, 한국의 가정집 사진 등
 - 기타 자료 :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 프랑스 가족관계 증명서(livret de famille), 전통 가족상과 핵가족에 관한 기사 등.
- ✓ 언어 자체를 위한 학습 : 『한국어를 배우시다! Apprenons le coréen !』 중 호칭 및 장소 관련 단어(4과, 5과), 장소와 위치 이야기하기(4과, 5과), 한국의 가족 호칭 문화와 관련된 문화란(7과, 2권 1과), 과거형 문장(14과), 기타 자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 등.
- ✓ 언어활동 및 평가

비디오 자료 보고 듣고 이해하기

텍스트 자료 이해하기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 및 집 사진 소개 태그 달기(비공개)

한국과 프랑스 가족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가족과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하기

그룹을 지어 가족에 대한 질문/대답하기 등

- ✓ 상호 문화 이해 : 한국과 프랑스의 가족 형태, 집 구조, 호칭 등의 다른 점. 프랑스와 한국의 존댓말과 반말 문화 차이 이해 등.

■ 참고문헌 ■

- 《프랑스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프랑스한인 100년사 누리집 <http://www.coreens.com/jalyosil/684>
 프랑스 교육부 중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https://eduscol.education.fr/164/langues-vivantes-cycles-2-3-et-4>
 프랑스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 <https://www.education.gouv.fr/bo/19/Special1/MENE1901585A.htm>

〈토론〉 “프랑스의 중등언어교육 과정 및 평가와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현황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활용의 예-”에 대한 토론문

김보경(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본 연구는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면서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높은 프랑스의 중등 언어교육 과정 및 평가, 교재 개발 현황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강미란 선생님은 연구자, 교육자로서뿐 아니라 민간 한국어문화교육협회의 회원으로서 프랑스의 공립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어교재를 집필하신 실제적인 경험을 소개해 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동양 언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1956년에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대 초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에 한국어가 고등학교 내에서 “살아있는 언어”(Langue Vivante, LVC)로 불리는 정식 외국어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이것은 복잡한 프랑스의 행정 절차와 제도 내에서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한국어 교육자분들의 열의와 노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 및 질문을 드림으로써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고견을 더 자세히 듣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프랑스에서 외국어교육을 언급할 때 ‘제1 외국어 (Langue Vivante 1)’, ‘제2 외국어(Langue Vivante 2)’, ‘제3 외국어(Langue Vivante 3)’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언어교육에서 말하는 ‘제2 외국어’의 개념과 달라서 혼동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와 핀란드 교육을 경험해 보고 비교해 본 바로는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핀란드의 언어교육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프랑스의 경우 다소 문화적 요소가 강하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 다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미란 선생님을 비롯한 AFELACC의 교재집필진분들이 개발하신 프랑스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인 “Apprenons le coreen !”의 수요가 높아 중급 교재(B1-B2)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이 교재 시리즈의 초기부터 참여하신 저자로서 프랑스의 문화적인 요소와 프랑스인 학습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집필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일반 한국어 교재들과의 차별성이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에 처음으로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가 시행되었고 2016년에 제2 외국어 필수 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2019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한국어의 반영 비율이 올랐고 제2 외국어의 경우 유럽 공통참조기준으로 A2-B1 수준의 실력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정 이전의 바칼로레아 한국어 과목 문제가 대부분 문학 작품 텍스트에서 읽기 및 쓰기 문항이 출제되어 다른 외국어 과목과 비교했을 때 합격률이 높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이후 바칼로레아 제3 외국어는 시험이 없어지고 수

시 평가 점수만을 반영하며, 제1 외국어와 제2 외국어는 총 세 번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바칼로레아 총점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개정 이후 바칼로레아와 수시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다소 복잡한 바칼로레아 시험 개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평가 부분에 있어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교육자로서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

강소희(태국 끄라비 Ammartpanichnukul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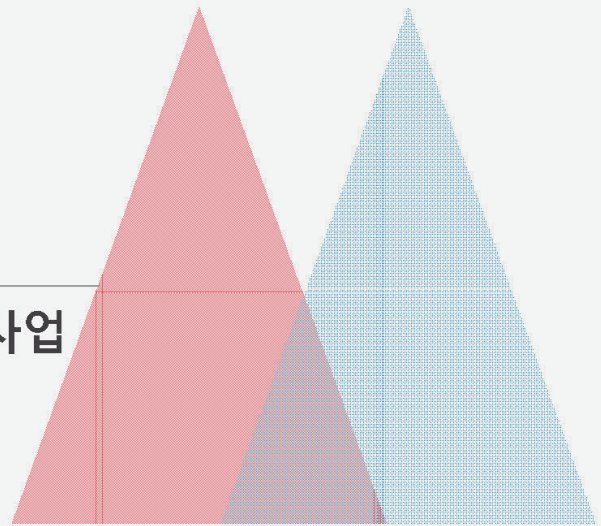
목 차

1.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2. 태국 한국어교육 현황
3. 태국 현지학교 수업 구조
 - 3.1. 한국어 교육과정
 - 3.2. 교과서 선정 및 활용
 - 3.3. 한국인 교사의 역할
4. 한국어 수업 사례
 - 4.1. 교육 환경
 - 4.2. 한국어 초급 수업
 - 4.3. TOPIK 및 PAT 수업
 - 4.4. 문화수업
5. 수업 개선 방안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001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1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1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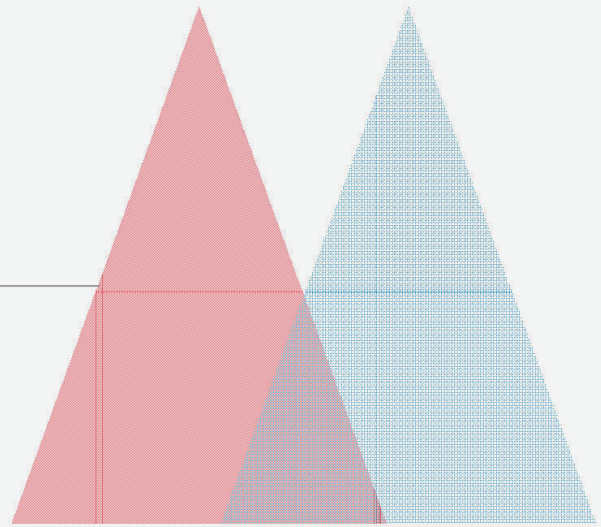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180여 개
2011년부터 태국 전역 50여 개 학교에 한국인 교원 파견
태국 학제에 따라 매년 5월 파견, 이듬해 3월 귀국 일정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002

태국 한국어교육 현황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2 태국 한국어교육 현황

2007년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

2017년 태국 교육부 신교육과정에서 3년 6학기 과정으로 개발

2018년 대학 입학 시험(PAT) 과목으로 채택

2018년 태국 교육부와 태국 한국교육원(KEC)에서 한국어 교과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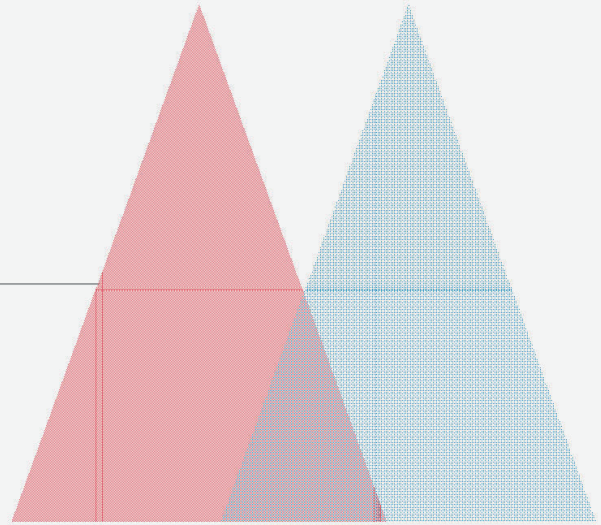
태국 내 46,000여 명의 한국어 학습자 존재

해마다 대학 입학 시험 한국어 과목 응시자 및 전공반 학생 수 증가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003

태국 현지학교 수업 구조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3.1 한국어 교육 과정

- 태국의 중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전공반 개설하여 운영
- 학교에 따라 한국인 교원은 4~6학년만 맡는 경우도 있음.

교양반	전공반
주 1~3시간 수업	주 6~12시간 수업
한국어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존재	한국 관련 학과를 지망하거나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구성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3.2 교과서 선정 및 활용

- 교양반, 저학년 수업에서는 교육부에서 배부하는 KEC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하나, 전공반의 경우 학습자 수준에 따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채택
- 태국어본이 있는 <이화 한국어>를 비롯해 <맞춤 한국어>, <열린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서강 한국어> 등 다양한 교재 사용
- 최근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 개발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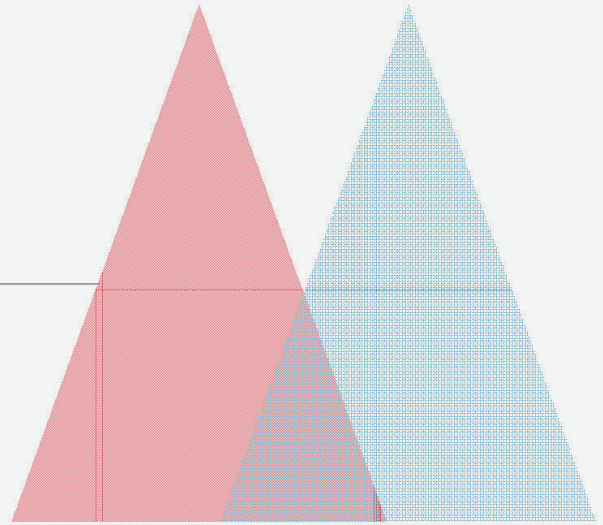
3.3 한국인 교사의 역할

- 태국 현지 교사와 함께 전반적인 교실 운영
- 중간, 기말고사 출제 및 성적 관리
- 각종 학교 행사 참여
- 교재 선택 및 현지 맞춤 자료 개발
- 학습자는 대개 초급 수준
- 태국 현지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수준 또한 초급에서 중급 사이
- 팀티칭을 하는 경우 한국인 교사는 말하기, 듣기 수업만 맡는 경우도 있음
- 주 1회 동아리 활동 시간에 문화 수업 또는 TOPIK, PAT 시험 대비반 운영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004

한국어 수업 사례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1 교육 환경

- 지역별로 교실 환경이 매우 다름
 - 빔 프로젝터,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장비가 없는 경우
 - 인터넷 연결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 또한 불안정한 경우
 - 교재 미비 및 활동 자료가 부족한 경우
 - 문화 수업을 위한 자료나 교구가 부족한 경우
 - 한국어 수업을 위한 전용 교실 또는 교무실이 없는 경우
 - 날씨,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은 경우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2 한국어 초급 수업

- 한국인 교사는 학교 상황에 따라 주 8~23시간 강의
- 수업 시간은 50분이지만,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 전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를 고려해 실제 수업은 30~40분 정도
- AMMARTPANICHNUKUL의 경우 전공반 3개 학년 주 3시간, 교양반 3개 학년&3개 분반 주 1시간을 비롯하여 1시간의 문화수업까지 총 19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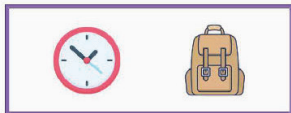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요일/시간	8:30-9:20	9:20-10:10	10:10-11:00	11:00-11:50	11:50-12:40	12:40-13:30	13:30-14:20	14:20-15:10	15:10-16:00
월	5/7 941		6/9,10,11 941			6/6 926		6/3,4,7 941	문화수업
화				4/8 941		4/2,3,4 926	4/5,6,7 926		
수	4/8 946	4/8 946	5/10,11,12 941			5/4,5,8 941	5/7 941		
목		5/7 946		6/6 941			4/1,11,12 926	6/1,2,12 941	
금			6/6 941				5/1,2,3 926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2 한국어 초급 수업: 교양반(KEC 교과서 활용)

- 4학년: 1권, 5학년: 2권, 6학년: 3권 사용
- AMMART의 경우 각 학년별로 3개 분반 운영, 한 반에 30~40명
- 태국인 교사와 팀티칭으로 한국인 교사는 주 1시간 수업
- 교양반 특성상 학습 진도가 매우 느림
- 한글부터 간단한 어휘, 문장 학습 위주
- 한 학기 내내 한글만 가르치기도
- 재미 위주의 수업 진행
- 한국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함께 있음

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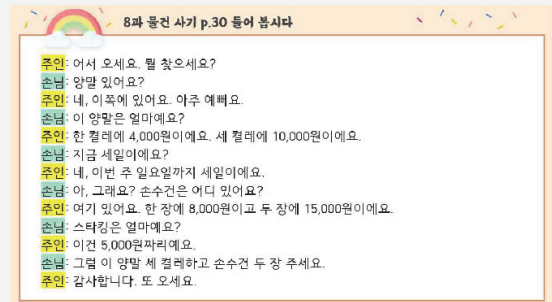


시계하고 가방이 있습니다.
시계와 가방이 있습니다.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2 한국어 초급 수업: 전공반(이화 한국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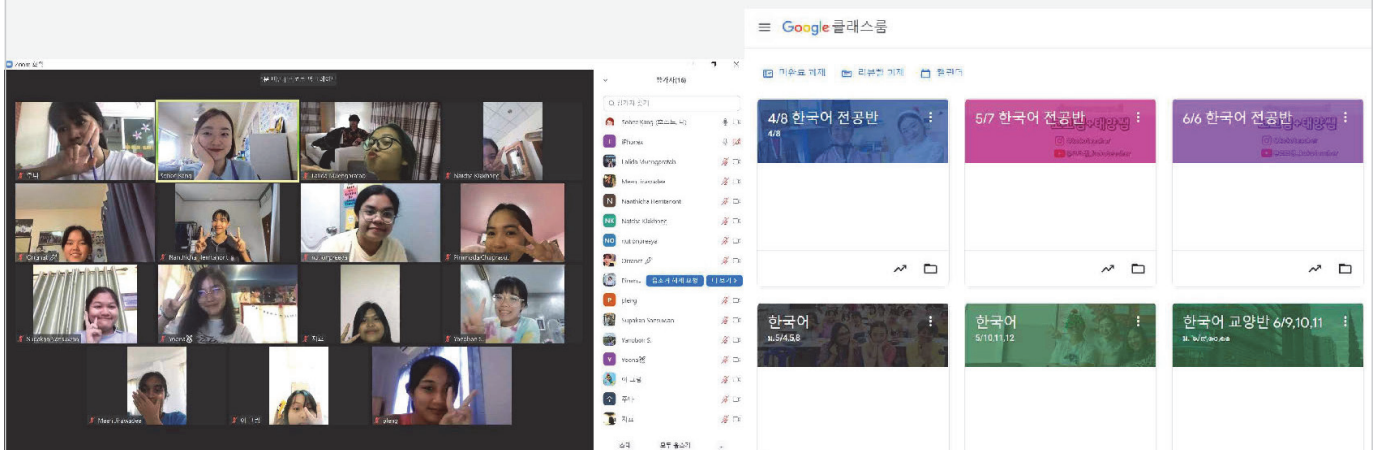
- 4학년: 1-1권, 5학년: 1-2권, 6학년: 2-1권 사용
- 해마다 면접을 통해 전공반 인원 선발하므로 한 반에 10~30명 정도
- 태국인 교사와 팀티칭하며 한국인 교사는 주 3시간 수업
- TOPIK이나 PAT 응시하므로 시험 대비반 따로 운영하기도 함
- 학습자는 대개 초급~중급 수준이지만, 일부 고급 학습자도 존재
- 선정한 교재 진도에 따라 수업
- 교사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교사 재량에 따라 다양한 수업 구성 가능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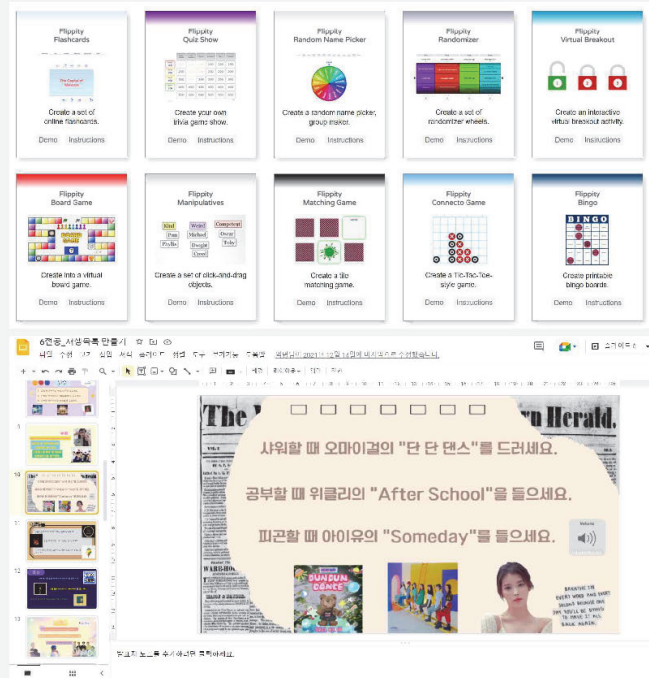
4.2 한국어 초급 수업: 온라인 수업

- GOOGLE MEET, ZOOM 및 GOOGLE CLASS 활용
- 학생 및 교사의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생기기도 함



4.2 한국어 초급 수업: 온라인 수업

-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수업 내용 복습을 위해 Flippity, Kahoot, 워드월 등의 게임 활용
-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구글 클래스에 숙제 자료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직접 다운로드 후 숙제로 제출하도록 유도
-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에 적극적인 태국 학생들의 특성 활용하여 비디오 만들기 숙제 제시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3 TOPIK 및 PAT 수업

<TOPIK 대비 수업>

- TOPIK의 경우 COVID-19로 인해 2020년 11월 시험을 마지막으로 계속 연기된 상황
- TOPIK 기출 문제를 풀거나 교사가 직접 기출 변형 문제를 제작해 수업
- 문법 설명을 위해 태국인 교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 교사가 맡기도

<PAT 대비 수업>

- PAT7.7 한국어 시험은 100문제를 3시간 동안 푸는 객관식 시험
- 초급~중급 수준의 난도
- 90번~100번 10개 문항은 문화 문제로, KEC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 정확한 설명을 위해 태국인 대학 교수 초빙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음.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3 TOPIK 및 PAT 수업

■ 어휘, 문법

[1-7]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 저, 30분 정도 좀 늦을 것 같아요. _____이/가 너무 밀리는데요.
나 : 그래요? 천천히 와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기다릴게요.
- 1. 길
 - 2. 교통
 - 3. 차
 - 4. 지하철
2. 가 : 파마하고 싶은데 학교 근처에 어느 _____이/가 잘하나요?
나 : 정문에 있는 데는 어때요?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아주 좋아요.
- 1. 미용실
 - 2. 옷가게
 - 3. 편의점
 - 4. 찜질방

30. 가 : 어떤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_____
나 : 요즘 제가 자주 _____ 음식은 비빔밥이에요.
- 1. 만들
 - 2. 만드는
 - 3. 만들은
 - 4. 만들는
31. 단어의 발음이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 1. 여덟 [여덜]
 - 2. 값이 [갑씨]
 - 3. 불이다 [부치다]
 - 4. 대학로 [대한노]

4.3 TOPIK 및 PAT 수업

■ 담화, 독해

[32-34]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32. 저는 점심에 떡볶이나 김밥을 먹으려고 해요.
- 1. 떡볶이와 김밥을 먹을 거예요
 - 2.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어요
 - 3.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었어요
 - 4. 떡볶이를 먹거나 김밥을 먹을 거예요
33. 식당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 1. 없어요
 - 2. 없어져요
 - 3. 하나만 없어요
 - 4. 하나밖에 없어요

[74-7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종업원 :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손님 : 다섯 명이예요.
종업원 : 그러면 창가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님 : 네, 감사합니다.
종업원 : 메뉴판입니다. 보시고 주문하시려면 저를 불러 주세요.
손님 : 잠깐만요. 그냥 주문할게요.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종업원 : 주로 제육볶음, 김치찌개 그리고 설렁탕을 많이 주문하세요.
손님 : 그러면 제육볶음 이 인분하고 김치찌개 세 개 주세요. 파전도 하나 주세요.
종업원 : 죄송하지만 파전은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 : 아, 그럼 잡채 하나 주시겠어요?
종업원 : 네, 알겠습니다.

74. 위글의 대화 장소는 어디인지 고르십시오.
- 1. 편의점
 - 2. 한식집
 - 3. 주방
 - 4. 찻집
75. 다음 중 위의 손님이 주문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 1. 제육볶음
 - 2. 김치찌개
 - 3. 잡채
 - 4. 설렁탕

4.3 TOPIK 및 PAT 수업

- 문화

[91-94] 물음에 답하십시오.

91. 다음 중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1. 세종대왕	2. 단군왕검
3. 이순신	4. 신사임당

92. 다음은 한국의 전통 놀이입니다. 도구가 필요 없는 놀이를 고르십시오.

1. 강강술래	2. 제기차기
3. 연날리기	4. 윷놀이

93. 이것은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1. 시루떡	2. 송편
3. 떡국	4. 백설기

94. 한국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1. 3	2. 4
3. 7	4. 8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4 문화수업

- 주 1회 춤춤(동아리 활동) 시간을 문화 수업으로 활용
-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수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체험형 수업 진행
- 태국인 교사가 통역 가능한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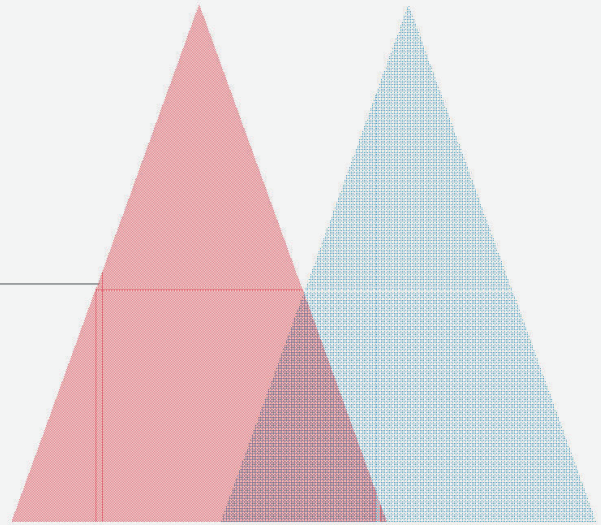
<문화 수업 예시>

게임	윷놀이, 공기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프라이팬 게임, 369, 잔말놀이 등
공예	종이접기(한복, 복주머니, 무궁화 등), 부채 만들기, 캘리그래피, 태극기 그리기
요리	떡볶이, 김밥 등 한국요리 레시피 파일 꾸미고 직접 만들기
문화 설명	3.1절, 광복절, 추석, 설날 등 수업 시기가 겹치는 공휴일 관련 설명
기타	K-POP 따라 부르기,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감상 등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005

수업 개선 방안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5 수업 개선 방안

- 학교별로 학습자 수준 및 교실 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태국 현지 한국어 교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태국인 교사의 한국어 실력이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재교육 필요.
- 미비한 수업 환경으로 인해 한국인 교원 스스로 교구를 마련하고 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 태국 현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한국인 교원간의 현지 수업 교류 필요.
- 한국 학생들과는 다른 태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필요.
- 온라인 수업의 경우 인터넷 사정으로 실시간 수업이 되지 않는 경우 있으므로 LMS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예습, 복습 유도.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토론〉 “태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안화현(태국 송클라대 핫야이 캠퍼스)

이 연구는 태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다양한 환경의 교실 수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2000년 초반에 시작된 한류라는 좋은 토양 속에서, 민간 차원보다는 태국과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정책적으로 2007년에 태국 교육부가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지정, 2011년에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원 파견, 2018년에 태국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 태국 교육부와 주 태국 한국교육원 주관 한국어 교과서 발간 등,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원으로 파견되어 직접 학교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교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태국 중등 한국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제목이 “태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목을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사례 연구”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장의 “태국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장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황”으로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2장에서 태국 내 46,000명의 한국어 학습자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넷째, 3장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교양반과 저학년 수업에서는 교육부에서 배부하는 KEC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전공반의 경우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한다고 했는데, 전공반의 경우에 KEC 교과서와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4장에서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에 적극적인 태국 학생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디오 만들기 숙제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숙제를 제시하고 점검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5장의 “수업 개선 방안”에서 학교별로 학습자 수준 및 교실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원간의 긴밀한 협업이나 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협업 및 교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